

사순절 제 3 주일.

기도서 P. 257 B해

제1독서(출애 20:1-17)  
제2독서(고린前 1, 22-25)  
복음(요한 2, 13-25)

# 숲정이

발행인 김봉희  
인쇄인 조성호  
주간집 한상갑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칼럼



## 하이타이의 고백성사

### 이상섭 신부

사도 바오로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성체를 이루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인 우리 몸은 온갖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장사의 집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성전인 우리 몸을 장사의 집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무슨 말씀으로 꾸짖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성전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성전을 우리 스스로가 더럽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인 성전은 너무나 더럽혀져 있습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를 보시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에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깨끗이 씻어내라고 꾸짖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에 묻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하이타이'가 필요합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는 회개와 고백성사가 필요합니다. 참다운 회개를 하고, 참다운 고백성사를 보기 위해서는 사순절을 성스럽게 지내야만 하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성스럽게 보내기 위해서는 금육과 단식제를 지키고,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공식기도에 참여하고, 매일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더럽혀졌던 성전은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 경건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이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에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살자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의 우리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고백성사를 통해서 속죄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회개와 고백성사로써 내 자신을 정화하는데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말도록 합시다.

(주현동성당 보좌신부)



## 내 탓이요!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대통령은, 대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닌 "무지와 빈곤 그리고 부족간의 알력으로 대변되는 고뇌"속에서 종교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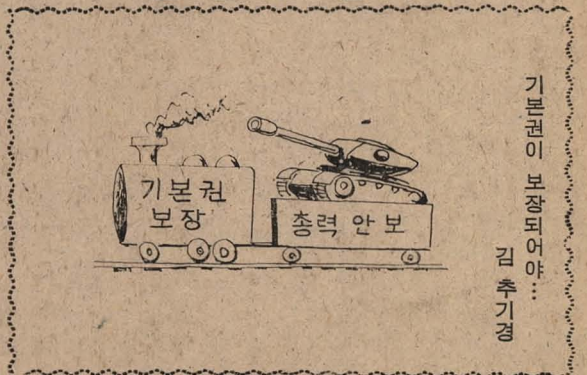
"전 세계의 인류는 현재 더욱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들 자신 역시 그러한 격차를 전보다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그들은 충분히 먹는자와 굶주리는자로 二分되고 있으며, 권력을 가진자와 그것이 없는자, 지배하는자와 지배당하는자, 착취하는자와 착취당하는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잘먹는자는 소수이고, 이 세계의 富와 인류를 지배하는자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 더우기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수의 인간들은 그들의 피부색과 인종에 의하여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한층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소수인들이 속해있는 그 국가들이 거의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오류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누구보다도 우선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모순을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개발은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현존하는 여러 억압과 불의 대신 社會正義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創造 72年 11月號에서)

크리스찬인 나는 부당한 지배와 착취의 장본인이 아닌가? 내 가정, 내 일터에서(가장 보잘 것 없는 작은 그리스도)에게서 부당한 이윤을 얻어내고 짓누르지는 않았는가? 아무도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답할 수는 없으리라.

지금은 사순절이다. 결손하게 "내 탓이요"하고 가슴을 치자. 부끄러운 마음으로 되돌려 주자. 억눌림을 당한 작은 그리스도의 인권과, 부당하게 빼앗은 작은 그리스도의 이익을 되돌려 주자.

## 숲정이 산책





# 해 방 신 학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나는 제 3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1979. 1. 27~2. 18)의 주제였던 '복음화'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교회의 기본적 주제이고 항상 중요시되어온 주제이다. 그것은 또한 '미래의' 주제이기도 하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를 실현해야 하며 미래에도 계속 말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화라는 이 주제는 교회의 사명에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복음화라는 것은 인격으로서의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안에 그리스도를 현존케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자 함의 의미와 그 올바른 차원을 재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다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재발견은 동시에 인간해방의 가장 깊은 원천이다. 사도 바울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갈라 5:1).

그렇다면 '해방'은 분명히 신앙의 문제이며 근본적인 성서상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해방'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생활의 내용이 되어왔다.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는 이 주제가 새로운 역사적 흐름안에 되돌아와 있음을 증언하였다. 따라서 해방이란 주제는 당연히 교회의 가르침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해방신학이나 해방의 사도적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제 해방이란 주제는 그 깊이를 더해야하며 성서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 □ 중요한 주제

오늘날 해방이란 주제를 중시하게 하는 무수한 원인들이 있다. 여기에서 그 모든 원인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해방이란 주제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말한 '인간됨위에 대한 전인류적 열원'임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해방신학을 가끔 라틴 아메리카와 연관시켜 말한다. 그렇지만 해방은 현대신학자들의 연구대상일 수 없다. 발타살(H. U. von Balthassar)이 해방신학을 전인류적인 것으로 제시한 것은 옳은 일이다. 차원만 다를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갈라 5:1)는 그 자유는 전인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학의 과제는 해방의 참된 의미를 서로 다른 역사적 내지 현실적 차원들 안에서 재발견하는 일이다.

### □ 진리의 인식

그리스도 자신이 해방을 특별히 진리의 인식과 연결시켰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던 그 자유의 가장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해방은 인간의 내적변모이며 이 변화는 진리를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 내적 변모는 영적인 변화이며 이 변화 안에서 인간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성인(에페4:24) 인간은 이렇게 내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사회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의로움을 대변하게 된다.

진리는 인간 인식의 성장 즉 인간의 내적인 삶을 깊게 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예언적 의미와 예언적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진리의 이 예언적 권능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로서, 진리의 증인으로서 끊임없이 진리가 아닌 것을 반대하셨다. 우리는 심한 표현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하고도 과감하게, 어떤 때는 단죄를 주저치 않으시고 거것을 반대하셨다. 예를 들면 '회칠한 무덤들'(마태 23:27) '눈먼 인도자들'(23:16) '위선자들'(23:13, 15, 23, 25, 27, 29) 같은 표현들이다.

그리스도의 예언적에 참여하는 이와같은 진리의 봉사 는 교회의 과업중 하나이다. 교회는 이를 역사적 흐름 안에서 계속 수행할 것이다. 불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국가나 제도들, 체제나 통치의 메카니즘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고발되어야 한다. 그것은 불의는 가끔 아무런 논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학, 범죄학, 인간의 신체나 정신, 그 양심이나 확신을 괴롭히는 폭력은 고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인간과 그 품위, 인생과 그 정신 및 육체에 대해 특별한 논리를 가르치셨으며 이로써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셨다. 인간이 이 진리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진리를 거것으로 만들거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 역시 용납될 수 없다. 진리는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해방 역시 진리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 □ 인간의 두가지 측면

짧은 시간에 해방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 속에 포함된 바를 모두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인격적이고도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의 모든 필요로움과 그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인간을 보아야 한다. 인간은 역사적이면서도 역사를 초월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같 (3면에 계속)

□설계·김리 허가수□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상담 환영!!!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배)

##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삼

□ 사순절 묵상 ③

### 진정한 의미의 희사(喜捨)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내어주는 것이어야

진정한 사랑의 행위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먹다남은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없으니 너나 가져라 하는 행위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니까 너나 가져라 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멸시이며, 오만에서 나온 것이기에 사랑의 정반대 행위입니다.

우리가 미사중에 영하게 되는 영성체의 원래의 의미는 모두가 함께 바친 것-적게 바치거나 많이 바치거나를 막론하고 한데 합친 것을 같이 나누어 먹는 행위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광경에 예수님께서 "빵을 떼셔서"란 표현은 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순절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은 "나눔"입니다. 많이 가진 이는 많이 나누고, 적게 가진 이는 적게 나누는 행위, 이것이 진정한 애증(愛憎)의 의미입니다. 물론 가장 완전한 것은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성부께서 외아들을 몽땅 내놓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부 내놓으셨듯이, 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셨듯이, 우리의 성직자 수도자들이 모든 것을 다 내놓아 스스로 가난해지셨듯이,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최저의 필요만 남기고 다 내어놓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희사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들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한걸음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내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교회의 인성회(仁成會) 전국 사무국 제공

(2년에서 계속)

대처법 약하지만 생각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초월한다. 인간은 초월적인 신비와 한없는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 해방신학은 무엇보다도 이 인간의 전체적인 진리에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라틴 아메리카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현대의 모든 차원 안에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간의 해방을 선포해야 한다. 해방은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해방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해방은 보다 분명해져야 하고 보다 충만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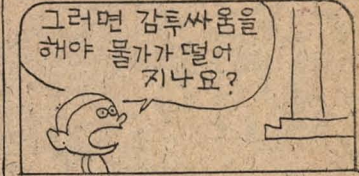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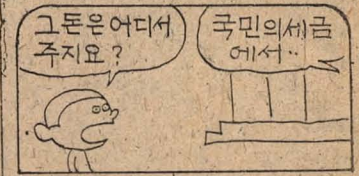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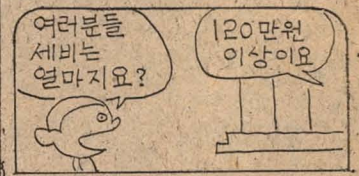
□ 악보다 강해야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요한 18:37)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과 현대세계에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신한것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악보다-도덕적인 악이나 사회적인 악보다-강하기 위해서 인간안에 있는 선의 생명(dynamism of the good)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우리는 이를 하늘님께 말씀드릴 뿐 아니라 교회와 인류 가족 전체의 선을 위해서 이를 실현하기를 원한다. (2. 21 일만 알현에서)

-로세르바도베 로마노紙 79. 2. 28字-

## 요십이 (294) 김병오



교우들의 전당  
(견습생 구합, 16세~18세 미만)  
**스타 사진관**  
전주시 고사동(동아여관) 앞  
전화 ☎ 6094

◆경윤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교우들의 건강상담  
**이 화 약 국**  
대표: 김 지 덕(바오로)  
약사: 황 명 순(아네스)  
김제 전화: 2006·2666·3666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직 원 채 용(급모)**  
1. 자격: ① 병력을 필한자나 면제된자  
② 주산 부기 3급 이상  
③ 이리시에 거주하는 참신한자  
2. 제출서류: ①이력서. ②반명합판1매  
③주민등록등본 ④병력관계증명서  
⑤자격증사본  
3. 마 감: 1979년 3월 22일  
4. 전형일차: 1979년 3월 26일  
5. 제 출 처: 이리 주현 신용협동조합  
(본당 사무실) T. 3993  
주현동 전주교회 신용협동조합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철·카메라 대여 DP&E  
**전 주 광 고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 1585  
◎ 감초당 약국 앞

주단·포복 흡수 이불감 도산매  
**유 진 상 회**  
구시장 보화당 앞  
이리시 인화동 1가 84  
장 안 태(바오로)  
전화: 5821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사순절 특별 강연회(3) 21일<수> 오후 8시, 진동성당(※ 7시 30분부터 미사)  
※ 주계...십자가의 현실적 의미, ※ 강사...배문환 신부(광주 대진 신학대학 교수)  
□ 투각(4) 28일<수>, 부활과 인간 구원(박진량 신부), 진동성당에서  
-주최: 교구 사목국 후원: 진동성당 성화회

2. J.O.C 회장단 회의 및 지도투사 모임 24일<토> 오후 7시~25일<일>  
① 회비...1,500원, ② 장소...가톨릭센터 내 J.O.C 사무실
3. 순정이 편집실 소식...본당 소식을 월요일에 우체통에 넣어 주세요  
공소 신자들이 주일날 순정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 편집 마감일이 매주 화(火)요일입니다  
○ 행복한 가정연수회: 3월 24일 오후 3시~25일 정오까지, 가톨릭센터  
□ 순정이 편집실 전화복기 성금, 감사합니다...진동성당 10,000원

#### (중양)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태현석  
사도 회장 이복성

1. 사도회·성모회: 18일<일> 공식미사 후
  2. 아치에스: 25일<일> 오후 2시  
베지오단원 및 협조단원 참가
  3. 성당 앞자리에 앉읍시다
  4. 성경, 성가집을 지참하세요
  5. 대학생 신인생 환영회·공식미사 후(회합실)
  6. 중·고학생회 임원개편: 회장-최만규, 부회장-유승욱, 임원개편식: 18일 오후 4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224, 223원

#### (서화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1. 부녀주일: 10시미사 후
  2. 수요기도회: 21일 밤 8시미사
  3. 반상회 및 가정방문: 20일-9반, 21일-10반, 22일-11반, 23일-12반
  4. 교무금 완납하여 어려운 분당 도움시다
- 지난주 봉헌금: 56, 365원

####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1/4분기 해당된 봉헌금을 완납해 주세요
  2. 성모회 월례회: 매월 3째주일 공식미사 후
  3. 중·고학생 체육대회: 오늘 1시~6시, 해성학교 운동장 많은분 참석하시어 협조 바랍니다
  4. 성령기도회·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5. 첫 영성체 교리: 토요일-2시, 일요일-2시
  6. 예비자교리: 주일 공식미사 후, <화>10시, <수>10시
  7. 불 판공성사 일정 안내  
19일-저녁 1구, 20일-저녁 2구, 21일-금암동, 22일-진북 2동 1반·2반, 26일-진북 2동 3반, 27일-진북 2동 4반, 28일-진북 2동 5반·6반, 29일-진북 2동 7반·어은골, 4월1일-동양아파트, 2일-태평동  
※ 학생 및 직장인: 매주<토> 오후
- 지난주 봉헌금: 133, 210원

####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중성  
사도 회장 김성록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입학식: 24일<토> 오후 2시  
진입생들 많이 보내주세요. 부모님의 협조 바랍니다
  3. 미사시간 변경: 다음주(25일)부터 새벽미사-오전 6시, 저녁미사-7시 30분  
학생미사-매주<토> 오후 5시, 토요일 저녁미사 없음
  4. 수녀원 비품구입에 협조해주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보다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5.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아직 교무금 신입 못하신분 신입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87, 465원

####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제  
사도 회장 유제상

1. 공소판공: 20·21일-내동리, 21일 오전 10시-동산촌, 22·23일-미산리, 4월 2~3일-회당리
  2. 가정방문 협조에 감사합니다. 부녀회원님
  3. 판공성사때 사진 1매씩 지참 바람
  4. 불우 이웃돕기 구두담기  
목상회 끝내고 많은 협조 바람(한마음회)
  5. 미사후 서로 인사를 나누시다
  6. 예비자교리: 주일-오전 11시, 수요일-저녁 7시30분  
※ 경향잡지 보실분 신청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41, 625원 교무금: 146, 095원

####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범익  
보좌 신부 김기성  
사도 회장 유수홍

- ☆ 사순 제 3 주: 벽지 공소돕기 주간
1. 꼬미씨음: 오후 2시
  2. 사순절 특강: 강사(배문환 신부: 대진 신대) 수요일 저녁미사 후(8시)
  3. 글로리아 성가대: 매일 저녁미사 후 연습
  4. 예비자 교리: 일남-주일(10시미사 후), 젊은이-수·목 저녁미사 후, 학생-토(오후 4시)
  5. 가정방문: 교동
- 사순절 회생헌금: 50, 005원  
□ 지난주 봉헌금: 197, 710원

####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1.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3월 19일,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람
  2. 가정방문  
20일-진 1반(김마리아), 22일-진 2반(유누시아)  
23일-진 3반(양바울라), 24일-진 4반(김안나)
  3. 애령회 간부명단: 회장-이갑진, 부회장-유순자·이분남, 총무-허순덕, 회계-최복주·송영자  
입원: 최소자·강영애·박복남·이순우·신영애·이인자·권영일·송해·김정래·정순신·고인순·홍명선·이옥래·김복수·김행자·서석자·정춘자·송정래·이옥련·조식
  4. 보좌신부님 사제관 비품비: 신옥범(2만원)
  5. 청년회 회합시간 변경: 24일부터 수요일 7시→토요일 오후 6시로 많은 회원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99, 495원

####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 ※ 본당살림이 항상 어렵습니다.  
교무금 신입하지 않으신분 신입해 주시고 매월 교무금을 내도록 합시다
1. 가정방문: 안행동·효자 1가
  2. 구역미사: 24일 저녁 7시-안행동 구역
  3. 공소방문: 23일-두현, 30일-상검
  4. 유아영세: 다음주 공적미사 후 영세받을 어린이가 있으면 사무실에 연락
  5. 성령기도회: 매<수> 오후 7시
  6. 파티마의 모후 주회  
성령세미나 관계로 수요일에서→화요일로
  7. 어린이미사 및 교리: 매주<수> 1시 30분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8. 중·고생미사 및 교리: 매주<토> 오후 4시
- 지난주 봉헌금: 50, 515원